삼성 이승엽(오른쪽)은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빠질 것 없는 선수다. 그라운드 안에서나 밖에서나 타의 모범이 되는 이승엽이 18일 수원 kt전에서 어린이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어린이팬에게 사인을 해줄 때에도 늘 배려를 해주는 이승엽이다.

사인 하나에도 정성 가득 '배려왕 이승엽'

배려는 마음의 법 배려, 클린 스포츠

배려를 실천하는 스타, 법무부와 스포츠동아가 함께 합니다

국민타자? 국민배려꾼 이승엽
경기 전 인터뷰·사인회도 성실
"팬들이 원하면 감사히 해야죠"

야구는 '희생'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유일한 스포츠 종목이다. 희생의 몫은 테이블세터 혹은 타격이 약한 하위 타선 타자들의 몫인 경우가 많다.

2012년부터 올 시즌 8월29일까지 삼성 이승엽(40)은 598경기를 뛰었다. 그 중 희생번트로 기록된 숫자는 단 1이다. 5년의 시간 동안 희생플라이를 제외한 희생타는 단 한 번뿐이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같은 팀 박한이는 522경기를 뛰면서 67개의 희생번트, 김상수는 580경기 54개의 희생번트를 기록했다.

한편으로 보면 이승엽은 희생, 그리고 배려와는 가장 거리가 먼 팀의 중심타자를 맡고 있다. 그러나 그라운드 안에서 이승엽은 늘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다. 한·일 개인통산 600홈런에 2개를 남겨둔 위대한 홈런타자지만, 극적인 상황에서 터져 나온 홈런을 제외하면 평소 홈런 세리머니는 언제나 겸손하다. 흔히 홈런을 치고 난 뒤 방망이를 던지는 '배트 플립'도 하지 않는다. 초대형 홈런을 날리고도 홈런을 맞은 상대 투수의 기분을 생각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라운드를 돈다.

야구장 밖의 이승엽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야구선수 이승엽보다 더 겸손하다. 단순히 스포츠 스타로 의무감을 다하기 위함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은 훈훈함을 넘어 따뜻함으로 전해온다.

그는 2011년 일본 오릭스에서 뛸 때 도호쿠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자 구단을 찾아가 기부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일본프로야구팀은 개인 이름이 아닌 팀 이름의 기부 문화가 보편적이다. 팀원의 한사람으로 기부에 동참한 이승엽은 국내 방송사에 따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며 성금을 전했다. 홀로 기부금을 낸 사실이 팀 동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헤아린 행동이었다.

이승엽은 일본으로 진출하기 전 어린 시절부터 남몰래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에 앞장섰다. 홈런수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거나, 기념비적인 홈런을 기록한 뒤 구단으로부터 상금을 받으면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하곤 했다. 각종 시상식, 연봉 계약 후에도 다양한 기부활동도 하고 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금전적으로만 도움을 건네지 않는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김호연 군의 유가족을 올스타전에 초대했고, 올해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중인 홍성욱 군을 올스타전에 초청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는 일본과 4강전에서 결정적 2점 홈런을 때리며 승리를 이끈 후 "그동안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눈물을 흘려 큰 울림을 전하기도 했다. 정작 본인은 팀 내 입지가 약화돼 시즌 중 열린 올림픽에 참가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지만, 오롯이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헌신을 다하던 순간이었다.

이승엽은 2015시즌 말부터 2017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대스타가 은퇴 시점을 미리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미 나이는 40대가 됐지만 여전히 리그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다. 이승엽은 "미리 은퇴 시점을 알려야 구단도 전력구성 등 장기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은퇴라는 큰 결정 앞에서도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겠다는 진심이었다.

23일은 '야구의 날'이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KBO는 구단별로 2명씩 지정해 사인회를 열었다. 다른 구단들은 대부분 젊은 선수들이 팀을 대표해 사인회에 등장했다. 그런데 삼성은 팀에서 유일한 40대 선수인 이승엽이 대표 선수 중 한명으로 나섰다. 경기 전 사인회 참석은 사실 많은 선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이다.

이승엽으로선 충분히 사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홈구장에서 열린 사인회를 앞두고 이승엽은 또 한번 배려를 먼저 선택했다. 이날 일찍 야구장에 나와 훈련을 마친 뒤 한·일 개인통산 600홈런 도전에 대한 방송사 인터뷰를 성실히 마쳤다. 그리고 사인회장으로 가며 "팬분들이 젊은 선수들이 나가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라며 웃었다. 주변에서 "아니다. 팬들이 가장 원하는 선수는 여전히 이승엽이다"고 말하자 "그럼 감사히 열심히 해야죠"라는 답이 곧장 돌아왔다. 이승엽은 정성껏 사인회를 마쳤다.

이승엽이 '위대한 타자'로 평가받는 것은 단순히 홈런 숫자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남을 위한 배려와 헌신에 앞장서고 있기에 슈퍼스타를 넘어 '위대한 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공동기획 : 법무부 스포츠동아 동아일보 CHANNEL A

국내 복귀 때도 친정팀 위해 말 아낀 이승엽

■ 주변인들이 말하는 이승엽의 배려심

삼성 라이온즈 김인 전 사장은 지난 1월 대표이사 이·취임식에서 큰 울림이 남는 말을 남겼다. 김 전 사장은 "여러분 모두 꼭 '전설의 아바타'가 되어 달라. 영원히 기억될 전설과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전설은 지금도 자전거 페달을 쉼 없이 돌리고 있다. 앞바퀴는 실력, 뒷바퀴는 자기관리다. 행여나 넘어질까, 멈춰 설까,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퇴임사에서는 직접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사장을 떠날 때 '그 전설이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빙그레 웃으며 "당연히 이승엽 선수다"고 말했다.

이승엽은 고교 시절부터 최고의 선수였다. 1995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단한 뒤 슈퍼스타로 성장했고,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해서도 일본 최고 명문구단 요미우리의 4번타자 자리를 꿰찼다. 그러나 그는 단 한번도 '변했다', '건방지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아버지 이춘광 씨는 이승엽이 어렸을 때부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며 엄히 가르쳤다. 철저한 가정교육, 바른 인성은 언제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기관리와 친절함으로 이어졌다.

이승엽은 2011시즌을 끝으로 일본 오릭스에서 퇴단했을 때, 삼성 류중일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말이 보도된 후에야 "삼성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거취가 친정팀에 부담이 될까 먼저 배려한 것이었다. 류 감독은 "사실 2012년 국내 복귀 후에 이승엽이 매우 부진했다. '주전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감독으로 무척 힘든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미 부와 명예를 이룬 후에도 더 겸손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꼭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기다렸다. 이제 스스로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승엽다운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Sports & Law Story 1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정정당당'

각본이 없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

스포츠(Sports)라는 말은 옛 프랑스어인 'desport'에서 유래했다. 스포츠는 우리말로 보통 '운동경기'로 번역되지만, desport는 원래 '여가'를 뜻하는 말이었다.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의 스포츠에선 경쟁이나 승부의 요소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즐긴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했다.

스포츠가 이처럼 여가나 즐김의 의미를 넘어 경쟁이나 승부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스포츠 자체를 직업으로 삼는 종목이나 선수도 많아졌다. 나아가 관중들도 이제는 많은 돈을 내고 경기를 관람하게 됐다. 또 스포츠 자체나 선수들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스포츠선수가 인기직업의 가장 높은 곳에 배치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신의 못 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기도 한다.

미국의 MLB, NBA, NHL, NFL, 영국의 EPL,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FA 계약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는 선수들이 각 종목에 생겨났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다 보니 최근 스포츠계에서도 법을 어기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그러면서 '스포츠의 기본정신을 망각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스포츠의 기본정신'이란 도대체 뭘까?

TV가 많지 않던 시절, 프로레슬링 경기가 중계되는 날이면 사람들은 TV가 있는 집에 모여 앉아 경기를 관전하곤 했다. 마흔 살 전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박치기의 제왕' 김일 선수가 반칙을 일삼는 일본이나 미국 선수들을 상대로 박치기로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을 보며 온 국민이 열광하곤 했다. 송곳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숨겨서 링에 올라 반칙을 저지르는 선수에 대항해 맨 이마 하나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서 모두가 큰 쾌감을 느꼈던 것이다. 거기에 천규덕 선수의 당수, 장영철 선수의 드롭킥, 여건부 선수의 알밤까지 우리에게 재미와 더불어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 왜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각본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실력과 작전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부터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다니!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믿었는데, 각본이 있다니!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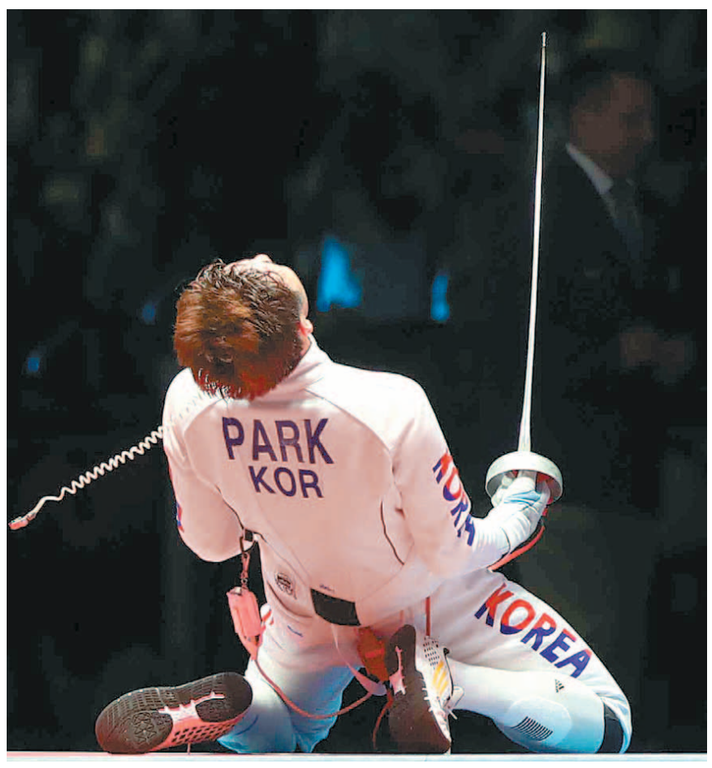
그렇다.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바로 '정정당당(正正堂堂)'이다. 정정당당은 비겁한 짓을 하지 않는 바르고 떳떳한 태도를 가리키는데,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 심판, 심지어는 관중들에게까지도 요구된다. 선수는 승부를 조작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감독이나 코치는 승부처에서 가장 좋은, 가장 확률 높은 작전을 펼치고 선수를 기용하는 자세, 심판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양심과 규칙에 따라 판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관중들에게도 인간 승리에 감동해주고, 멋진 승부에 박수쳐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KBL 김영기 총재는 후배 감독들에게 비록 큰 점수차로 지고 있더라도 가급적 주전 선수들을 기용해달라고 당부한다. 관중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이고, 후보가 아닌 주전 선수들을 보러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시즌을 치르기 위한 전략이나 체력적 문제, 후보 선수들의 경험 쌓기를 통한 주전 도약 등의 측면에서 주전 선수의 기용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관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에는 틀림없다.

얼마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다. 우리는 또 밤새워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때때로 TV에선 중계 아나운서의 이런 말이 들려왔다.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우리는 가상이 아닌, 각본이 없는 진정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보고 싶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정정당당'이다. 그래야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될 수 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결승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한국 박상영이 금메달을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뉴시스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외국인선수도 힘 보태

오늘 광주서 'SAC 캠페인' 사인회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가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KIA 타이거즈의 간판 브렛 필이 30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는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전에 앞서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사인회를 열고 관련 홍보 활동을 펼친다. 필은 '한국형 모범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스타로 캠페인에 힘을 보탠다. 이번 무대는 스포츠동아가 주최하는 '2016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연중 캠페인-SAC!(Stop & Clean)'의 일환이다. 브렛 필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KIA의 '떠오르는 별' 김호령(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과 함께 팬들을 만나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의지를 다진다.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프로야구 사인회는 서울 잠실구장(5월 24일·kt 위즈-두산 베어스전), 부산 사직구장(6월 28일·삼성 라이온즈-롯데 자이언츠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잠실 사인회에는 두산 정수빈과 허경민이 선수 대표로 나서 팬들을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직 사인회에선 롯데 강민호와 정훈이 팬들과 직접 만나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뜻을 모았다. 당시 강민호는 "프로야구 선수를 대표해 캠페인에 참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야구는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다. 야구는 야구로만 즐겨 달라"며 불법 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프로야구 잠실구장과 프로축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팬과 함께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선포식'을 개최했던 스포츠동아는 올해도 지방을 비롯한 전국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의 심각성과 폐해를 경고하는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